

## [KS]'6K' 돌아온 에이스 미란다, 홈런 한 방에 울었다

등록 2021.11.17 20:15:19

5이닝 6K 1실점 호투

5회 박경수에 선제 솔로포 허용 '옥에 티'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1 KBO 한국시리즈 두산 베어스와 KT 위즈의 3차전 경기, 4회초 두산 선발 미란다가 역투하고 있다. 2021.11.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희준 기자 = 에이스는 에이스였다. 두산 베어스의 아리엘 미란다(32)가 '삼진 머신'의 면모를 과시하며 호투를 펼쳤다.

하지만 홈런 한 방에 아쉬움을 삼켰다.

미란다는 17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쏘 KBO 한국시리즈(KS-7전4선승제) 3차전에 선발 등판, 5이닝 동안 6개의 삼진을 숙여내며 5피안타(1홈런) 2볼넷 1실점으로 호투했다.

2연패로 위기에 몰린 팀을 구하기에는 2% 부족했다. KS 1~2차전에서 전 타석 출루에 성공한 강백호를 완벽하게 봉쇄했으나 5회초 KT 베테랑 박경수에 홈런을 얻어맞으며 KT에 선취점을 줬다.

미란다는 올해 KBO리그 최고의 투수였다. 14승 5패 평균자책점 2.33을 기록, 평균자책점 부문 1위, 다승 부문 3위에 올랐다.

올 시즌 225개의 탈삼진을 잡은 미란다는 1984년 고(故) 최동원이 기록한 223개를 넘어 KBO리그 한 시즌 최다 탈삼진 신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미란다는 두산이 와일드카드 결정전,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동안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정규시즌 막판 어깨 통증을 느낀 탓이다.

두산이 KS까지 진출하면서 미란다는 재활을 거쳐 마운드로 돌아왔다. 정규시즌 마지막 등판이었던 지난달 24일 LG 트윈스전 이후 24일 만의 등판이다.

김태형 감독이 이날 경기 전 "미란다는 제한 투구수를 정해놓지는 않았다. 상태를 지켜보며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란다는 82개의 공을 던졌다.

최고 시속 150km에 이르는 직구와 포크볼을 주무기 삼아 매 이닝 삼진을 숙아냈다.

4회까지는 무실점 투구를 이어갔다.

1회초 선두타자 조용호를 삼진으로 처리한 미란다는 황재균에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줬다.

하지만 강백호에 포크볼로 2루수 병살타를 유도해 순식간에 이닝을 끝냈다. KS 1~2차전에서 8연타석 출루에 성공했던 강백호는 이 병살타로 출루 행진을 마감했다.

미란다는 2회초 선두타자 유한준에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얻어맞았다. 유한준은 미란다는의 4구째 시속 144km짜리 직구를 노려쳐 장타를 만들어냈다.

순식간에 실점 위기를 만났지만, 미란다는 제라드 호잉, 장성우를 연달아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한숨을 돌렸다.

미란다는 후속타자 배정대에 중전 안타를 허용했지만, 중견수 정수빈의 정확한 송구 덕에 실점하지 않았다. 짧은 타구를 달려 나오면서 잡은 정수빈은 홈에 정확하게 송구했고, 3루를 돌아 홈으로 파고드는 유한준을 아웃시켰다.

3회초 2사 후 상대 1번 타자 조용호를 볼넷으로 내보낸 미란다는 황재균을 우익수 뜯공으로 처리하고 실점 위기 없이 이닝을 마쳤다.

미란다는 4회초 2사 후 호잉에 우월 2루타를 헌납했지만, 장성우를 우익수 플라이로 잡아 실점을 막았다.

5회초 선두타자 배정대를 풀카운트 승부 끝에 삼진으로 돌려세운 미란다는 베테랑 박경수에 홈런을 얻어맞아 KT에 선취점을 내줬다. 풀카운트에서 던진 7구째 시속 147km짜리 직구가 실투가 되면서 장타를 허용했다.

미란다는 심우준에게도 중전 안타를 맞으며 위기를 맞는 듯 했다. 그러나 조용호에 2루수 병살타를 이끌어내 이닝을 마무리했다.

공백기가 있었던 만큼 미란다는에게 더 이상 이닝을 맡기기는 쉽지 않았다. 두산은 6회초 마운드를 이영하로 교체했다.

0-1로 뒤진 상황에 교체된 미란다는 KBO리그 첫 포스트시즌 등판에서 패전 투수가 될 위기에 놓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xiju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